

커버스토리



# SNU EE LIFE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 소식지  
2010 / 상반기

## CONTENTS

02	인사말	학부장 인사말
03		부학부장 인사말
04	인터뷰	신임교수 인터뷰
06		대학원 연구실 탐방
08		졸업생과의 만남
10		여학생 모임
11		선배와의 대화
12	행사	전자전
13		체육대회
14	수기	교환학생 수기
15		대학원 연구실 인턴
16		봉사상 수상자
18		졸업예정자와 교수와의 만남
19	에피소드	기자단 후기
20		커버스토리

“전기공학부 학우들의 생생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SNU EE LIFE**  
 2010 상반기 발간을 축하합니다.”



전국진  
학부장

백호의 기상이 꿈틀거리는 2010년 경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개강을 앞두고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을 전기공학부 학우 여러분! 지난날에 대해 아쉬워하거나 현실에 안주하기보다는 미래에 대한 열정으로 한해를 시작하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학부는 2009년 하반기부터 학우들에게 생생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전기공학부 뉴스레터를 발간하였습니다. 답답하고 삭막한 강의실을 벗어나 다채로운 삶을 스케치하고 학부의 여러 가지 소식을 학우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하고자 발간한 뉴스레터는 웹진 형태로 창간호를 발간하였으며, 이번 제2호는 SNU EE LIFE로 명칭을 바꾸어 책자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학업과 실험 등 바쁜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자기향상을 꾀하며 또한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학우들과 사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더욱 행복한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바쁘지만 잠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동기, 선배, 교수와의 편안하고 자유로운 소통의 공간인 SNU EE LIFE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전기공학부 가족이면 누구든 참여할 수 있는 이 공간을 유익하고 알찬 소식들로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SNU EE LIFE 제2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발행에 참여한 학생기자단 및 행정실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노종선  
연구학부장

본 뉴스레터를 통하여 전기공학부 학생들이 학부의 다양한 면을 접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학부에 대한 애착심 및 소속감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살리어 학생들은 뉴스레터를 읽고 학부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뉴스레터의 발간에 적극 참여하는 자세를 가짐으로서 보다 능동적인 학부 구성원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평소에 학부에 대해 느끼는 바를 주변의 친구들과 토론하고 이를 뉴스레터를 통해 건의하는 기회를 활성화하기 바랍니다. 이를 통하여 학부 구성원으로서 학부의 발전에 기여하며, 또한 자신의 학부 생활을 풍요롭게 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자신의 발전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기공학부에서 모든 학부 학생들이 같은 기간에 같은 과목을 듣고 졸업하던 시대는 지나가고, 자기만의 시간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듣고, 군입대, 해외 연수 등의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도 많아져서 학사관리 업무가 무척 복잡합니다. 졸업을 위한 규정도 해마다 바뀌고, 나의 흥미와 적성에 맞춰 어떤 과목을 언제 들어야 좋을 지도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뉴스레터를 통하여 여러가지 유익한 정보를 얻고 즐거운 학창생활이 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덕군  
고무학부장

우리 전기공학부, 그리고 이의 모태가 된 전기, 전자, 제어계측공학과 출신 선배들이 우리나라 산업에 지대한 역할을 해왔다는 사실을 잘 아실 것이고, 이는 우리 전기공학부 학우들이 사회에서 지대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인재라는 큰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 학우들께서 이런 자긍심을 갖고 서로에게 많은 관심을 갖고 격려를 하면서 활기차고 즐겁게, 학부의 주인으로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부에서는 부족하나마 전공하나, 체육대회, 선배와의 만남 등 여러 일들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여러 가지 만남의 장과 온라인 매체를 통하여 서로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관심사를 토론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얼마 전 학부에서 뉴스레터를 발간하여 학부 관련 사람들의 소식과 이야기를 알리는 또 하나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현재의 뉴스레터가 이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지 자신은 없지만, 앞으로 계속 정제된 소식을 알리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장이 되어 우리 전기공학부의 주인들을 연결하는 매체로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남익  
학생부학부장

SNU EE LIFE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종호 교수



1987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학사졸업  
 1989 Seoul National University, 석사졸업  
 1993 Seoul National University, 박사졸업  
 1998 ~ 1999 MIT-Microsystems Technology Laboratory of EECS  
 1994 ~ 2002 Wongwang Univ., Professor  
 2003 ~ 2009 Kyungpook National Univ., Professor  
 2009 ~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Q. 2009년 2학기에 처음으로 전자회로2 과목을 가르치셨는데 학생들의 특징이 어떤가요?

저는 신임교수이기도 하면서 경력 교수인데 다른 대학에 있을 때보다 학생들의 질문이 많아서 그 점이 감명 깊었습니다. 시험 일정에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열심히 공부하는 분위기입니다. 저도 다른 학교에서는 한학기에 분야가 다른 네 개 정도의 과목을 강의하였는데 서울대에서는 한과목만 강의할 수 있어서 그만큼 학생들에게 신경을 많이 쓸 수 있어 좋았습니다. 하지만 퀴즈점수가 하위권에 속하는 학생들한테 자주 찾아오라고 하고 일부러 수업 후 한시간 정도의 시간을 잡아두었지만 그 학생들이 별로 찾아오지 않아 아쉬웠습니다. 찾아오기만 하면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을텐데 적극성이 부족한 학생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학생들이 열정이 많아 함께 책의 오타도 많이 찾아내고 어려운 문제도 같이 고민해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Q. 교수님께서 경북대에서 학사, 서울대에서 석,박사를 하시고 MIT에서 포닥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국내에서 공부를 하시고 교수가 되셨는데 어려운 점은 없으셨나요? 또 국내에서 공부를 하려는 학생들에게도 귀감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조언 한마디 해주세요.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도 내용실적이 좋고 뛰어나다고 해도 좋은 학교를 나온 간판스타를 선호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외국에 나가서 공부를 하는 것도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유능한 친구를 사귈 수 있고 그 친구들한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 악센트 위치를 틀리면 외국 친구들이 잘 못 알아듣기 때문에 영어를 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게 되서 영어 실력도 기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서 공부를 하든 잘하는 것이 중요하고 지속적으로 끈기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엔 잘하고 실력이 좋으면 그 분야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공을 하려면 끊임없이 실력을 기르고 성격이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부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람이 되고 실력을 갖추면 기회가 찾아오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기 자리를 만들어놓고 안전하게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공하는 것은 어디서 공부했냐가 아니라 본인한테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논문이나 책에 관심을 갖고 끊임없이 노력하길 바랍니다.

Q. 최근에 교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시는 분야는 무엇인가요?

주로 연구 하는 것은 메모리칩 입니다. 카메라에 들어가는 메모리와 3차원 소자를 주로 연구합니다. 또 트랜지스터가 작아짐에 따라 파라미터에 변화가 생기는데 파라미터의 변화가 생기는 원인인 노이즈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 바이오 센서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원광대에서 배운 원불교에는 무시선 무처선(無時禪 無處禪)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이라는 것은 참선을 뜻하는데 공부를 뜻하기도 합니다. 학생의 신분이기 때문에 전공공부를 시간에 관계없이(무시선), 장소에 관계없이(무처선)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은 아무리 짧은 시간이라도 악착같이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길지 않으므로 time loss가 생기지 않도록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사가 많고 약속도 많은데 이것에 관계없이 공부를 하려면 시도 때도 없이, 장소도 가리지 말고 공부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꼭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만이 아니라 생각을 많이 하는 것도 공부입니다. 처음엔 배운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무슨 뜻인지 계속 고민하고 생각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 내용이 느껴지고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너무 부족해서 다른 것으로는 싸워서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올바른 생각을 하는 전문가가 많아지는 것이 우리나라의 큰 자원이 될 것입니다.

신다영 기자

오성희 교수



1995 UC Berkeley, 학사졸업  
 2003 UC Berkeley, 석사졸업  
 2006 UC Berkeley, 박사졸업  
 2007 ~ 2009 University of California, Merced, Professor  
 2009 ~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Q. Cyber Physical System에 대해서 소개해 주세요.

최근에 IT 기술 발전이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특히 모든 것들이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저희 연구실에서는 많은 시스템이 네트워크에 존재할 때 우리가 실제 필요한 상황에서 각각의 시스템을 컨트롤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합니다. 이런 것들을 하기 시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각각의 시스템을 다 컨트롤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려서 문제가 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Cyber Physical System 이라는 이름을 갖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학문을 찾자는 취지에서 시작하게 되었어요. 이름이 생소해서 낯설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지만 기존의 임베디드 시스템,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 로보틱스 등의 분야가 융합된 학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Q. 인텔, 시놉시스에서 일하시다가 학교로 돌아오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 같은 경우는 대학원에 진학할 마음이 있었는데, 어떤 분야를 공부할지를 결정하지 못해 일단 회사에 취직했어요. 여러 회사 중에 마이크로프로세서 디자인을 배우고 싶어서 인텔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인텔에서 64bit 프로세서를 설계하는 프로젝트를 하게 되었는데, 프로젝트가 잘 안되어 프로세서 설계를 자주 수정하다보니 같은 작업이 반복되어 일이 지겨워졌어요. 그래서 회사를 옮기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소프트웨어 열풍이 불어서 소프트웨어 회사로 옮기려고 했어요. 인텔에서 배운 하드웨어 지식을 살릴 수 있을 만한 소프트웨어 회사를 찾다보니 CAD를 다루는 시놉시스에 입사하게 된 거죠. 시놉시스 R&D센터에서 일했는데, 저를 제외한 모든 연구원들이 박사학위가 있었어요. 박사들 사이에서 일하다 보니까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필요한 건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예를 들어 회의할 때 단어 하나하나를 다 이해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더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고, 공부를 계속 하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되었네요.

Q. 학생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대학원에 입학하니까 학부 졸업 후 바로 대학원에 진학하지 않은 게 좀 후회되더라고요. 학교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처음에 고생 좀 했어요. 지금 학부생들은 대학원에 진학할 생각이 있다면 자신이 뭘 공부하고 싶은지를 빨리 찾고 그 분야로 진학하기 바랍니다. 특히 학부 1,2학년 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미리 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공부하고 싶은 분야를 빨리 찾는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빨리 시작할 수 있어서 좀 더 유리하니까요. 그리고 분야를 정한 후에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그 길로 밀어붙이길 바랍니다. 보통 사람들은 미리 정하지 않고 기회를 따라서 다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리드에 수동적으로 따라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지 말고 처음에 즐길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자기가 리더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결론은 자신이 즐길 수 있는 일을 빨리 찾으라는 거죠. 저희 연구실에 들어오고 싶은 학생은 self motivation이 크고, 연구를 즐기면서 할 수 있는 학생이었으면 좋겠어요. 억지로 하려고 하면 아무리 똑똑해도 연구를 잘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알고리즘, 확률, 선형대수 등의 과목을 수강하면 좋겠네요. 학점보다는 열정을 중요시 여기니까 이 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많이 찾아와주길 바랍니다.

박성식 기자

# 유비쿼터스 네트워크연구실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연구실은 서울대학교 뉴미디어 통신연구소에 자리잡고 있으며, 박세웅 교수님의 지도 아래 현재 10명의 박사과정 학생과 6명의 석사과정 학생이 열정을 다하여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지도교수님을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본교에서 학사와 석사과정을 마치셨고 University Of Pennsylvania에서 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이후 AT&T Bell Lab에서의 연구 활동을 마치시고 1994년부터 서울대학교에서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연구실을 이끌고 계십니다. 성실함과 정직함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시고 이를 갖춘다면 언제든지 사회에서 원하는 인재가 될 수 있다고 항상 학생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다음으로 저희 연구실의 연구 분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네트워크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언제 어디서나 쉽게 네트워크에 접속하여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유비쿼터스 환경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무선 네트워크가 있으며, 이를 통하여 사람과 사람, 사람과 기계뿐만 아니라 기계와 기계도 무선 인터페이스를 통해 연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은 이러한 무선 네트워크의 전반적인 부분 (자원할당기법, 네트워크 라우팅, 네트워크 보안, 모바일 P2P 등)과 더불어 최근에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스마트 그리드를 위한 네트워크 설계에 대하여 연구하고 있습니다. 각 연구 분야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 **Wireless Networks** 저희 연구실에서는 무선 LAN, 4세대 통신인 IMT-advanced 네트워크, Mobile WiMAX 네트워크, 센서 네트워크 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주어진 네트워크 환경을 고려한 프로토콜 설계, 효율적인 네트워크 자원 관리, 사용자의 이동성 및 위치를 고려한 서비스 모델, 저전력 설계 등의 주제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림 1. Wireless Cellular Network

- **IT 기반 스마트 유틸리티를 위한 네트워크 설계** 최근 전력 에너지 사용 효율을 극대화 시키고 다양한 전력 에너지 발전원을 수용하고 제어하기 위한 네트워크 설계가 이슈가 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전력 수요의 최대치를 억제하고 전력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향상시켜 전력 품질을 개선시키려는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기존의 통신 네트워크에서의 트래픽 제어 기법과 게임이론 등을 기반으로 하여 전력망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가정내 수도, 가스 등의 원격검침을 위한 유무선 통신 네트워크 설계에 관하여 연구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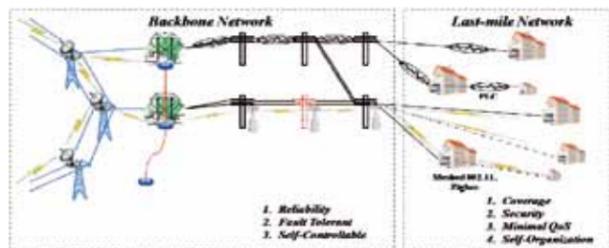


그림 2. 스마트 그리드에서의 네트워크

- **네트워크 보안**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정보가 전달됨에 따라 보안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최근 특정 사이트를 집중 공격하여 서비스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이용, 호스트에 침투하여 오동작을 유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를 주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보안문제를 야기하는 트래픽을 사전에 검출하고 이를 차단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보안 알고리즘 개발, 현대 인터넷에서의 보안 시스템 설계 등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실 생활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실 학생들은 출퇴근 시간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연구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만큼의 책임감도 필요한데, 이를 위해 2주일에 한 번씩 자신의 새로운 아이디어나 연구 결과에 대해 토론하는 팀 미팅과 한 달에 한 번씩 자신의 전반적인 연구 활동을 체크하는 성과 발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학생들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원하는 연구와 공부를 하면서도 목표한 결과를 달성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매주 한 번씩 최근의 연구 동향 및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논문 세미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발표 및 질의응답은 영어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여기에는 글로벌 시대에 적응하면서도 연구실에 속한 외국인 학생들을 배려하기 위한 교수님의 뜻이 담겨있습니다. 그리고 수업 또는 축구 시합을 통하여 연구에 매진하기 위한 체력을 다지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 교수님과 인터뷰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  
박세웅 교수



Q. 교수님께서 연구실 학생을 선발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또 선호하는 학생 상에 대해 알려주세요.

연구실 학생을 선발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소득의 2% 사회기부과 국가시책에 맞추어 2명의 아이를 낳을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야 기본 조건이 되고 그 뒤 면담을 합니다. 2% 기부가 큰 것은 아니고 최소한의 조건인데 이를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조금이라도 양도록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 서울대 전기공학부를 다니는 것만으로 이미 큰 혜택을 보는 것이니 우리 주변을 돌아보며 베푸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직과 성실한 태도를 요구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감자기 키울 수는 없지만 정직과 성실은 자신이 선택하면 누구나 보여줄 수 있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학생의 능력이 모자라서 나에게 혼나는 경우는 없지만 거짓이 있으면 사소한 경우에도 강하게 제재를 합니다. 또 각 학생의 자율성을 많이 주고 있고 스스로 동기부여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스스로 동기 부여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즐겁게 주어진 일을 한다면 좋은 학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조건이 많은가요.

Q. 교수님께서 학생들에게 관심이 많으셔서 면담을 자주 해주시는데, 이번 뉴스레터를 통해서 많은 학생들에게 조언과 해주고 싶은 말씀 해주세요.

수업시간에 자주하는 이야기인데 대학에 와서 잘 적응하고 다니는 학생에 대해서는 그냥 하던 대로 하라고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때까지 잘했었다는 생각만을 갖고 대학 생활 시작했다가 2학년쯤 되면서 무너지는 것을 많이 봅니다.

학교와 사회가 경쟁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으로 나누어지게 되고 못하는 그룹에 들어간 학생들은 방향하게 되고 많은 학생이 한번 무너지면 후 자신의 기본적인 성실성을 잃어버려 회복이 잘 안 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이런 학생들은 자신이 밀려나는 것을 고통스럽게 바라봐야 하고 경쟁에서 밀려나면 의욕도 없어지고 자신의 적성에 대해서도 혼돈을 느끼게 됩니다. 가장 말해주고 싶은 것은 모든 것을 잘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전기공학부에서 잘 못한다 해도 전국의 모든 학생들을 생각하면 자신은 상위 1%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자신의 위치를 지키기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자신의 역량 이상의 것을 발휘할 기회도 가질 수 있고 힘을 비축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 우위로 우쭐해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꾸준히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해 나가길 바랍니다. 자신의 일을 성취도에 관계없이 모든 일을 즐기면서 하길 바랍니다. 이것이 쉽지 않은 이야기인 것을 알지만 그렇게 해야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적성이 안 맞다고 다른 것을 해보자 잘한 다는 보장이 없기는 매 한가지입니다. 먼저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해서 부딪쳐 본 후에 그 다음 일들을 생각해보길 바랍니다.

## 대학원생과의 인터뷰



이종욱 석박사 통합 05학번  
(박사과정 4년)

Q. 박사과정 (or 석사과정)으로 더 공부하시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이종욱 학부 때 산악기능요원으로 3년간 일하는 동안 그동안 배운 지식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석사로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또 석사 2년이 지났을 때도 여전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더 공부하고 싶어서 박사과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박상규 학부 4학년 때 취업과 대학원의 강림길에 놓였는데 아직 공부할게 많이 남아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학원 생활동안은 힘들겠지만, 그만큼 사회에 진출 했을 때 나 자신을 조금 더 차별화시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석사로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강대호 저는 이번에 석사 신입생으로 연구실에 들어왔습니다. 저학년때는 공부에서 별 흥미를 느끼지 못했는데 4학년 수업을 들으면서 전공에 흥미를 느끼고 해 볼만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박상규 석사 09학번  
(석사과정 2년)

Q. 박사과정 (or 석사과정) 하시면서 힘든 점은 없으신가요?

이종욱 석사때는 학교근처에서 자취를 했지만 지금은 분당에서 통학을 해서 출퇴근 시간이 길어 체력적으로 힘듭니다. 그것을 제외하고는 딱히 힘든 것은 없습니다.

박상규 대학원 생활의 가장 어려운 점은 진로에 대한 불확실함 때문에 생기는 불안감인 것 같습니다. 졸업 요건을 제대로 만족시킬 수 있을까 하는 걱정 말고는 딱히 없습니다.

강대호 아직 신입이라서 잘 모르겠지만 선행된 논문 작업 하는 것을 보면 재미는 있어 보이지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어떻게 하면 논문을 잘 쓸 수 있을까 고민하다보면 앞으로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Q. 앞으로 진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이종욱 삼성 산학장학생이라서 1~2 년안에 졸업하고 우선 삼성에 가서 5년정도 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연구실에서는 이론적이고 지식적인 것을 배워서 현장에서 공학이 실제 생활에 응용되는 것을 보면서 일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박상규 박사진학은 아직 확실히 결심을 못했습니다. 박사 진학을 하던 취업을 하던 지금 공부하는 분야를 계속 공부하고 연구하고 싶습니다.

강대호 학업을 계속할 생각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인턴을 병행할 생각입니다. 앞으로 차차 결정하겠지만 박사 진학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강대호 석사 10학번  
(석사과정 1년)

Q. 진로로 고민하는 전기공학부 학생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연구실 들어오기 전에 해야 할 공부나 가져야 할 마인드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이종욱 아직까지는 공학도가 대우를 많이 받지 못하는 현실이라서 전기공학부 학생들이 전공 말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공학이라는 학문이 실제 생활에서 응용되는 것을 볼 수 있어 굉장은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쪽으로 흥미를 느끼신다면 회사에 가든 연구실에 가든 배우는 것은 많으니깐 더 관심을 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분야에 가더라도 공학 지식이 많이 쓰일 수 있으므로 전공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야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소극적이면 그것 밖에 못 배우지만 적극적이면 주변사람은 좀 피곤할지도 모르지만 본인에게 매우 도움이 되므로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박상규 공부를 더 할 생각이 있는 학부생이라면 어떤 분야를 더 깊게 공부할지가 가장 고민일 것 같습니다. 막상 대학원에 들어오면 연구하는 주제들이 학부 때 예상했던 것과 많이 다를 수 있으므로 관심분야의 연구실에 가서 최근 논문들이라도 몇 편 훑어본다면 대학원에 진학할 때 어떤 것을 주로 연구하게 될지, 어떤 과목들이 필요인지 대략 감이 올 것 같습니다.

강대호 학부 때 자기가 호기심이 생기고 관심이 생기면 무조건 해보시길 바랍니다.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경험해볼 수 있겠지만 가장 좋은 것은 다양한 분야의 친구나 사람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은 세상을 보는 시야를 넓혀줄 것입니다. 또 먹고 사는 것에 너무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은데 너무 어린나이부터 세속적인 것에 연매이면 사는 것이 재미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좀 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찾아나서는 과정을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또 대학원에 진학하실 것이라면 기본적인 수학과 영어를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대부분의 지식이 영어로 통용되기 때문에 영어실력이 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신다영 기자

서울에 기록적인 폭설이 내린 지난 2010년 1월 4일, 청담동 스키, 서울대 이글루 등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떠올랐지만, 그 중에서도 핫 이슈는 뭐니 뭐니 해도 박대기 기자의 폭설 속 취재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EE Life 졸업생과의 만남에서는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 95학번이자, 화제의 인물인 박대기 기자님을 직접 만나보았습니다.



박대기 (학부 95학번)

Q.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KBS사회팀에서 경찰사건기자로 일하고 있는 박대기입니다. 올 해 만으로 32세고, 전기과 95학번입니다.

Q. 폭설이 내린 날 어떻게 된 상황인지 설명해주세요.

눈이 온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6시 뉴스 들어가기 전에 여의도공원에 나가 도로상황 체크 기사를 쓰고 중계차에 탑승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눈이 많이 오는 바람에 호출이 자주와 차에 들락날락하기 힘들어서 계속밖에 서있었던 것입니다. 총 2시간 30분 동안 8번 정도 중계촬영을 했네요.

Q. 혹시 신입기자여서 폭설취재를 한건가요?

아닙니다. 선배들도 다 취재를 나가고, 신입한테는 원래 가장 쉬운 일을 맡깁니다. 선배들은 그 때 사고 현장 취재나 시민들 인터뷰를 하고 있었죠. 방송이 나가고 메일을 2000여 통 받았습니니다. 대부분 10~20대였는데 아직 노동에 노출이 되지 않은 분들이 '일을 저렇게 해야 하는구나.' 하고 감동을 받았던 모양이에요. 결과적으로 저 때문에 즐거워하셨으니까 잘된 일이라 생각하긴 하는데, 눈 온 날 다른 기자 분들 버스, 지하철 기사님들 등 더 고생하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제가 그 날의 상징으로 되는 것이 경연적이고 그런 점도 있습니다.

Q. 갑자기 유명인사가 되셨는데 달라진 점이 있나요?

전에는 그냥 취재하러 가서 인터뷰하면 제가 누군지 모르고 그랬는데, 이제는 많이들 알아보시는 것 같아요. 유명해지니 기자로서 제약이 되는 것이 많습니다. 예전에 성매매 현장을 취재하려고 단란주점이나 룬살롱 등 이런 데에 신분은 알리지 않고 갔던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취재를 하기 힘들어졌죠. 취재할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들어서 변장을 하고 다녀야 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평상시에 달라진 점이라면, 지하철을 탈 때 학생들이 '박대기다', '박대기다' 이러면 줄지도 못하겠고 책 꺼내서 읽어야 할 것만 같고 그렇습니다.

Q. 이메일 주소 waiting은 별명이셨나요?

아니요. 회사 동기 기자가 열심히 잘 대기하는 기자가 되라는 뜻에서 지어준 이름입니다.

Q. '퀴즈가 좋다' 왕중왕 출신이신데 그 해박한 지식은 어디서 얻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제 학부시절 별명이 전기공학부의 대표적 교양인이었어요. 그게 교양이 많아서 그렇다기보다 교양 과목을 열심히 들어서였는데, 그런 수업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혼자서 책을 읽는 것도 좋지만 우리나라 최대의 종합대학이라는 점을 많이 누리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Q. 그럼 들으신 교양 수업 중에 몇 가지 추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과학과 근대사회, 종교현상학, 서양 음악의 이해. 그리고 교양은 아니지만 미시경제학과 민병 총칙인데 이 두 과목을 꼭 추천하고 싶네요. 저희 아버지께서 미시경제학과 민병총칙에 사회 작동원리가 들어있다고 꼭 들어보라고 하셨는데 들어보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고시공부를 안하더라도 그 두 과목은 들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Q. 대학시절 연애 경험은?

저는 인기가 없는 사람이라서. 항상 짝사랑만 하고 그랬죠. 미팅은 많이 했어요. 그 때 과대의 의무는 미팅을 많이 주선하는 것이었거든요. 그 때 290명 중에 7명이 여자고 나머지는 다 남자였거든요. 매주 금요일 토요일에 남학생들은 미팅하러 가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자분들은 남자들 많은 수업을 들어가시고, 남자분들은 여자분들 많은 인문대 수업을 들어서 학교에서 만나는 것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사회에 나오면 좋은 짝을 만나는 것이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Q. 학업 면에서는 어떠셨는지? 전기공학부 에이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졸업생 250명중에 100~120등 정도였어요.

Q. 전기공학부 수업 중에서 제일 힘들었던 수업은 무엇인가요?

뭐니 뭐니 해도 실형 1, 2, 3, 4조. 아. 불과 2학점이었지만 체감 학점은 20학점인... 학부 마치고 다른 뜻이 있어서 의대나 치대 간 친구들과 말을 들어보면 결코 의대 공부보다 쉽지는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Q. 전기공학부 교수님 중에 기억에 남는 분이 있으신가요?

박세웅 교수님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교수님께 인생상담도 많이 했었고요.

박세웅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이런 것이 기억이 나요. 교수님이 하루는 출장을 가게 되어서 다른 곳에서 연구원을 초빙하여 특강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 때 한 학생이 어차피 들어봤자 못알아 듣는데 꼭 출석해야 하냐고 물어봤었어요. 그 때 박세웅 교수님이 "이제는 내가 그런 삶의 지혜까지 가르쳐주어야 되나." 고 하셨는데 그게 재미있는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Q. 그 때도 지금처럼 반이 나누어져 있었나요?

있었습니다. R반이었습니다.

Q. 대학 동기들과는 연락을 하고 지내시는지?

몇 명 있지만 사실 그렇게 많진 않아요. 제가 과학고를 나와서 고등학교 동창 위주로 만나게 되고, 대학 동창들은 가끔씩만 연락이 되요. 사실 엔지니어의 근무 환경이라든지 대기업의 사직 때문에 공대는 동창회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점이 있습니다. 이 점이 참 아쉽죠.

Q. 공과대학 출신 기자로서의 장단점은?

사실 방송 일은 전기공학과 무관하지 않아요. KBS 내에도 아주 많은 수의 엔지니어들이 있고, 방송이라는 시스템이 전기공학이 바탕이 된 거대 과학 중 하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학문보다 특히 전기공학과 좀 더 친연성이 있죠.

기자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가 하는 것은 아직까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다른 분들이 놓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전기공학적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점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인터넷 보안 문제 같은 것은 다른 분들보다 좀 더 잘 보도할 수 있겠죠.

Q. 원래 입학하셨을 때부터 기자가 되고 싶으셨던 것인가요?

아니요. 졸업하고 행정대학원을 다녔고, 공군장교로 군 복무를 마치고, 공기업에서 잠깐 일하다가 기자가 되었어요. 제가 잘하는 것이 글 쓰는 것이었고, 유명한 기자가 아니더라도 사람들에게 좋은 뉴스를 들려 줄 수 있는 그런 기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fact라는 것이 누가 말하든 다 똑같은 것은 아니거든요. 어떤 사실이 더 현실을 잘 보여주느냐, 혹은 어떤 것이 더 의미 있는 사실인가라는 것은 배치나 강약 수사법 등으로 조금씩 다르게 전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자기주장을 너무 게임시키는 것은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하지만, 객관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면서도 가장 온당하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전해 줄 수 있게 노력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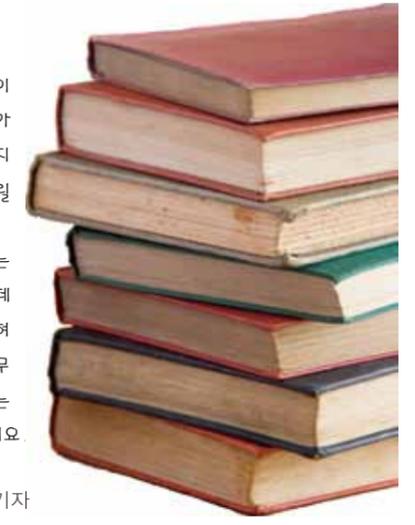
Q. 전기공학부 학생이 기자가 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글을 잘 쓰는 것입니다. 인터넷 게시판 같은데 쓰셔도 연습이 되요. 전기과에서 언론인이 되는 것은 굉장히 드문 경우인데 전기과 분 중에 인터넷 초창기 시절에 나오느리에서 재미있는 글을 많이 쓰셨던 분이 계세요. 그분이 지금 MBC 라디오 PD가 되었습니다. 명료하고, 애매한 사안이 있을 때 분석을 잘 하는 글을 잘 쓰시면 기자 일에 잘 맞고, 문학적인 글을 잘 쓰시면 PD쪽에 잘 맞겠죠. 아다.

Q. 진로와 다른 문제들로 고민하는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저도 오랫동안 학교 도쳐를 떠돌다가 학교 밖으로 나갔을 때, 저를 어떻게 받아주실까 걱정이 많이 되었었어요. 그랬는데 환대를 해주시더라고요. 전기공학부를 나와서 일반적으로 대기업의 엔지니어가 되는 것 같은 정해진 길이 있잖아요. 그런 것 말고 다른 길들을 갔을 때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 걱정하지 마시고 다양한 진로를 모색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일일이 답장을 보내 드릴 수는 없지만, 메일을 보내주시고, 제가 도울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잠시라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배우는 전자회로나 신호처리 같은 것이 인생의 전부라는 생각이 드는 분도 계시고, "나는 전혀 다른 길을 갈 것이니 이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 라고 생각하실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동기 중에서 IMF 때 의대나 사시 쪽으로 빠지신 분들이 많았어요. 이렇게 전혀 다른 길로 가신 분들도 전기과 나온 것을 별로 후회안하고 잘 살더라고요. 다만 전기과 생활이 "너무 재미없고 무료하고 왜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빨리 다른 길을 택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니까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신다영, 한승주 기자

# “할매회” 는 한마디로 전기공학부 여학생 모임입니다.

## 1. 할매회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주세요.

할매회는 한마디로 전기공학부 여학생 모임입니다. 전기과 여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교수님들과 대화도 나누는 자리입니다. 할매회가 아니면 전기공학부 여학생끼리 교류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반 여학생끼리도 친하게 지내기 어렵고 같은 반이라도 학년이 다르면 수업을 같이 듣는 것도 별로 없어서 평소에 친하게 지내기 어려운데 할매회는 한자리에 모여서 친목을 다질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일년에 한 두번 모두 모여서 친목을 다지는 것이 할매회의 목표입니다. 또 교수님들을 평소에 만나뵙기 어려운데 할매회에 교수님들이 많이 오셔서 유학, 대학원 랩 얘기 등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좋습니다.

## 2. 전기공학부 여학생으로서 사회 생활은 어떠세요?

회사에 가니 학교때보다 여학생 비율이 적으면 적었지 많지는 않았습니다. 또 서울대, 전기공학부, 여학생 이라는 타이틀이 좀 강해서 부담스러웠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이 타이틀에 대해 내심 기대를 해서 어울리는 행동을 해야할 것 같다는 압박감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너무 신경쓰지 말고 자신의 일을 하면서 자기답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박영미 (학부 05학번) LG Mobile Communications

## 3. 전기공학부 여선배로서 전기공학부 여후배들에게 조언 한마디 해주세요.

회사에서도 여자 비율이 매우 작습니다. 그런데 학교처럼 여학생끼리 붙여주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풀어놓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환경 때문에 남자 동기들보다는 자주 모이긴 하지만 가깝게 지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한번 만남 이 분야의 여자 동기는 절대 놓지 말고 소중하게 인연을 키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선후배들끼리 connection이 생기도록 할매회의 클럽을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회사 다니는 선배 언니들 얘기도 많이 듣고 평소에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신다영 기자

## 4. 마지막으로 전기공학부 후배들에게 조언 한마디 해주세요.

회사 들어왔을때 왜 휴학 한번 안했냐, 여행한번 안갔냐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딱히 불만이 있는건 아니지만 한번 갔다 왔으면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했었습니다. 생각이라도 할 시간이 있었으면 좋았을거 같고 견문을 더 넓힐 수 있어 좋았을 거 같습니다. 또 진로문제에 대해 생각을 미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회사 취직하는 것을 막연하게 생각하다가 반년만에 결정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2~3년 정도 생각하고 정보도 많이 듣고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길만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길을 생각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진로를 잘 모르겠다면 대강이라도 생각을 해놓고 어딜가도 상관없게 준비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TOEIC 점수를 높게 받지 못한 사람도 많을텐데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사를 다니면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해서 사람 만날 기회가 적습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보고 깊이 있게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선배와의 대화"는 교수, CEO, 법조인 등 사회다방면으로 진출해 있는 우리 학부 출신의 선배를 초청하여 진솔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 04학번 조나단

우선 당연하지만 각계각층에서 일하고 있는 선배들을 직접 만나 뵈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또한 선배들이 실제 겪었던 어려움, 모교가 직장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 형식적인 질문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점도 물어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하지만 강의실이 커서 공간상에서의 거리감이 느껴졌기에 작은 교실에서 동그렇게 앉아서 진행됐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김소영 성균관대학교 교수 (학부 93학번)



### 07학번 이태균

11월 12일 과 선배님이신 허영 박사님의 강연을 들었습니다. 제가 꿈이 박사님과 같은 기술창업을 통한 경영인이기 때문에 다른 때보다 더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이제까지 겪어오신 것과, 앞으로의 계획 등을 얘기해주셨고, 학우들의 질문에도 성심성의껏 답해주셨습니다. 롤모델을 제시받을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고, 앞으로도 선배와의 대화 기회가 있으면 언제든지 참여할 것입니다.



게임빌 송병준 사장(학부 94학번)



### 07학번 이상준

물론 교수님들 중에서도 학교 선배이신 분들이 많지만, 불과 몇 년 전에 졸업한 선배들의 성공 이야기를 들으니 조금 더 와닿았습니다. 대화를 진행할 때도 연단에서 질의 응답하는 식이 아니라 의자를 놓고 가까이 앉아 함께 샌드위치를 먹으며 대화를 하니 분위기도 좋았습니다. 선배님들의 자신감과 열정, 능력을 바로 앞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좋은 자리였습니다. 이제 군대를 가서 2년간 들을 일이 없겠지만 제대하고 나서도 이런 좋은 자리가 계속 유지되고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승주 기자

# 전자전

금상 최석재(학부 05학번) 회로놀이터

생각합니다.

저희 팀원들은 작년 MIT Media Lab에서 주최한 워크샵(Sharing Experience 2009)에 참가를 했습니다. 이 워크샵은 다학제간 연구를 주제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를 통해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기 위한 방법,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 등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기술들 중 저희 팀은 미디어랩에서 만든 Trackmate라고 불리는 인터페이스를 사용해보기로 했습니다. 일종의 이미지 태그인데, 이를 만드는 방법과 인식하는 알고리즘, 간단한 예제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 기술을 많은 사람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하다가 기존의 아이디어와 접목해서 이번 작품을 만들게 됐습니다.

작품은 '회로놀이터'로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의 수준에서 회로를 가지고 놀 수 있고, 회로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칠판에서 말을 움직이듯이 판 위에서 소자 블록을 움직여서 회로를 구성합니다. 소자들은 각목을 잘라서 아래에 태그를 붙였습니다. 이 태그는 각 소자 마다 고유하며 소자 종류, 저항, 전압 값을 설정함으로써 저항 소자, 전압 소자, ground 소자, 꼬마전구가 생기게 됩니다. 소자를 스크린 위에 올려두면 소자를 둘러싸는 원과 소자의 팔이 생기고, 두 소자를 가까이하여 팔끼리 서로 붙이게 되면 서로 연결됩니다. 이 작업을 여러 번 하면서 회로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로 구성만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로의 형태를 행렬로 만들어 회로의 노드 전압을 계산하여 표시하는 기능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는 회로이론 시간에 배운 nodal analysis를 이용하였는데 floating voltage 등의 모든 경우를 일반화하기 위해 기존 전압 변수 외에도 전류를 추가한 출력벡터를 설정했습니다. 이를 계산하는 데는 선형 대수학에 배운 가우스-조던 소거법이 쓰였습니다. 계산 결과는 교수님께서도 채점하시면서 감사를 하시곤 인정해주셨습니다. 노드 전압 외에도 꼬마전구 경우에는 밝기가 변하도록 시각적인 효과도 주었습니다.

작품은 책꽂이로 쓰이던 공간 박스 두 개를 연결해서 내부에 이미지 태그를 읽기 위한 카메라와 스크린에 표시하기 위한 소형 프로젝터를 넣었습니다. 그 밖에 카메라의 인식율을 높이기 위해 내부에 고휘도 LED array 두 줄을 배치하고 A4지를 통해 그 빛을 반사시켜서 적당한 조명 효과를 주었고, 스크린 역할을 하는 아크릴판은 난반사를 위해서 사포로 적당히 갈아냈습니다.

원하는 만큼 깔끔하게 작품이 만들어지지는 않았지만 처음의 의도를 충분히 잘 표현하게 되어 뿌듯했습니다. 낙성대에 있는 과학관 같은 어린이들이 많이 찾는 공간에 좀 더 큰 스케일로 이와 비슷한 작품을 설치해두면 어린 시절부터 회로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더 나아가 백만 전기공학도 양성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기과 학생들의 대부분은 어릴 적부터 이것저것 만들고 부수는 경험이 많으셨을 것입니다. 또한 수업시간에 배운 지식 혹은 그 이상을 이용해서 실제로 무언가를 만들고자 하는 욕구가 있으실 것입니다. 물론 저희 동아리 Sigma Intelligence에서도 그런 창작 욕구 해소를 할 수 있지만, 전자전도 여러분들의 그런 창작 욕구를 해소해줄 수 있는 좋은 통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신다영 기자



은상 김태일(학부 06학번) Tii-MEMS 관성센서의 응용에 관한 고찰

이번 전자전에서 은상을 받은 06학번 김태일입니다. 저는 4학년 2학기에 진행한 전기공학부 졸업 프로젝트의 연장선 상에서 작품을 출품하게 되었습니다. 졸업 프로젝트는 'MEMS 관성 센서를 이용한 무선 보행 분석 시스템'으로, 센서 모듈을 제작하여 파킨슨 병과 같이 보행 장애를 유발하는 질병에 걸린 환자의 보행을 분석하여 검사 및 치료에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제작을 최종 목표로 하였습니다. 전자전에서는 졸업 프로젝트를 통해 제작한 시스템에 '가속도 및 각속도 그래프', '주파수 분석', '자세 추정', '기울기 추정', '3D 테니스 게임' 등을 추가하여 'Tii-MEMS 관성 센서의 응용에 관한 고찰'이라는 제목으로 출품하게 되었습니다. 'Tii'라는 이름은 닌텐도 사의 Wii에서 따 온 것으로, 작품의 센서 모듈이 Wii 리모콘과 동작 원리가 유사하여 이와 같이 이름 짓게 되었습니다. 관성 센서를 이용하여 구현 가능한 여러 기능을 보여줌으로써 그 응용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시스템을 제작하면서 스펙 설정, 회로 구성, PCB 제작, firmware 제작, 통신 설정, PC software 제작 전 과정을 혼자 진행하여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학부 과정을 통해서 배울 수 없는 것들을 익혀 볼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특히, 졸업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부품비를 지원받을 수도 있고, 졸업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아쉬웠던 부분을 더욱 보충하여 작품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축구 | FC롤루

안녕하세요. 2009년 전기공학부 체육대회 축구에서 우승한 FC롤루입니다. 2008년에 이어서 2연패네요. 2010년에도 물론 우승할 계획입니다. 우리 FC롤루는 롤루반 학생들을 주축으로 하고 있는 팀이지만, 다른 반 학생들에게도 문이 열려 있습니다. 다 같이 모여서 좋아하는 축구를 하는 와중에 선후배간, 동기간 더욱 친밀해지고 협동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매년 진행되는 체육대회는 각종 실험과 프로젝트, 시험에 시달리는 학생들에게 정말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꼭 축구 뿐만이 아니라도 전기공학부 내에서 각자 취미가 있는 학생들끼리 모여서 함께 즐기는 기회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 체육대회

농구 | 노완우 팀

비록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매우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농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내년에는 더 많은 학생들이 참가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준비하신 이영근 선생님 감사합니다.^^



탁구 | 조준현(학부 03학번)

참가 인원은 적었지만 굉장히 수준 높은 대회였습니다. 좋은 기회를 마련해주신 덕분에 땀 흘려 운동할 수 있었고 운 좋게 우승까지 해서 기분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참가자가 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대회가 되면 더 좋겠습니다.

박성식 기자

# 스웨덴 옹살라 대학교에 다녀와서

안녕하세요. 전기공학부 02학번 최경철입니다. 저는 2009년 1월부터 6월까지 한 학기 간 스웨덴의 옹살라 대학교로 교환 학생을 다녀왔습니다. 처음 스웨덴의 옹살라 대학교로 교환 학생을 간다고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소식을 전했을 때 옹살라 대학교에 대해 생소하다는 반응을 보이셨고, 스웨덴이 아닌 스위스의 어느 도시로 가느냐는 질문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저조차도 생소했던 스웨덴의 옹살라 대학교는 우리에게 별로 알려지지 않은 것과는 달리 유럽권에서는 명문대학교로 유명합니다. 1477년에 설립되어 지금까지 500년이 넘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있고, 린네와 셸시우스, 그리고 옹스트롬 외 노벨상 수상자 8명을 배출한 북유럽 최고의 학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이 학교의 Information Technology Department로 교환 학생을 갔습니다. 이 학부는 일반적으로 한국 대학의 컴퓨터공학부에 대응되는 학부로, 프로그래밍 기초, 자료구조, 알고리즘, 운영체제 등 기본적인 컴퓨터공학부의 과목들과 Human-Computer Interaction 등의 특화된 과목들이 개설되어 있었습니다. 인도에서의 인턴ships을 통해 컴퓨터공학 분야에서의 과목들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던 저에게는 외국에서 영어로 수업을 수강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옹살라 대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공학, 운영체제, 컴퓨터 네트워크II의 세 과목을 수강하였습니다. 우리 학교와 약간 달랐던 점은 과제가 항상 팀별로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강생 2, 3인으로 구성된 팀별로 과제를 수행하기 때문에 팀워크가 매우 중시되었습니다. 이러한 수업을 통해 저는 전공 지식뿐만 아니라 같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능력을 기를 수 있었고, 팀원들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영어 실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최경철(학부 02학번)

이러한 학업 활동 외에도 스웨덴에서의 생활은 저에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우선, 옹살라 대학교가 위치한 '옹살라시'는 대도시였기 때문에 스웨덴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모인 여러 학생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의 다른 행동방식, 다양한 사고방식을 접하면서 진정한 글로벌 마인드를 갖출 수 있었습니다. 또한, 스웨덴의 높은 물가 때문에 요리를 직접 해 먹을 수 밖에 없는데 이렇다보니 자연스럽게 주방을 함께 쓰면서 세계 각국의 요리를 어깨너머로 배울 수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옹살라 대학교에서의 한 학기는 짧지만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짧은 낮과 혹독한 추위에 떨기도 했지만 이것을 이겨내면서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신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박성식 기자

BINEL(Biophotonics and Nanoeengineering Laboratory)과 인연은 2007년 1학기 신입 교수로 부임하신 권성훈 교수님의 전자장 수업을 들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수업시간에 연구 내용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열정적으로 들려주시는 권교수님의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당시 권교수님이 학부생 중에서 같이 연구를 해보고 싶은 사람은 부담 없이 찾아오라고 하셨지만, 저는 그 당시 미련하게도 아직은 전공과목을 공부하기도 바쁘다고 생각해서 그 기회를 잡지 못하였습니다. 시간은 흘러 4학년 1학기가 되었고 주변의 친구들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한숨이 쌓여갔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피땀 흘려 배운 전공 지식들이 어떻게 쓰이든지도 모른 채 전기공학부는 졸업하기는 싫었고 그렇다고 대학원에 무작정 진학하기도 싫었습니다. 저는 학부 때의 전공지식과 실제 연구, 그리고 세상과의 연결고리를 찾고 싶었고 마침 BINEL이 떠올랐습니다. 그 길로 교수님께 찾아가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 연구하겠다고 약속을 드린 후, 저와 BINEL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윤석(학부 06학번)

BINEL에서의 생활은 친구들과 흔히 얘기하던 연구실의 삭막함, 딱딱함, 그리고 웬지 모를 침울한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오히려 학부생활보다 더 활기차고 자유롭고 따뜻하게 느껴지기도 하였습니다. 연구실 초기의 저는 연구실 형, 누나들이 추천해 준 논문을 읽으면서 전반적인 흐름을 잡는데 시간을 많이 쏟았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생소하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논문의 내용들이 저를 바보로 만드는 듯 했지만, 연구실 사람들의 친절함, 설명과 토론을 통해 어느 정도 논문을 읽는 방법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읽는 방법을 알고 나니 자연스럽게 어떻게 그 내용들을 만드는 지가 궁금해졌습니다. 이에 박사과정 누나가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 같이 일을 하자고 제안하기 전에는 제가 연구에 방해만 되지 않을까 망설였는데, 의외로 반갑게 받아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프로젝트의 내용은 머리카락보다 작은 미세유체관 안에서 3D 마이크로 구조물을 만드는 방법을 연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실제 연구를 진행하다보니 학부 때 배운 세세한 전공지식보다는 그 과정 속에서 배운 큰 흐름을 파악하는 능력과 논리적인 연구 진행 방식이 더 중요하게 느껴졌습니다. 또 현재의 공학 분야에서 얼마나 경이로운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얼마나 우리 삶에 큰 임팩트를 줄 수 있는지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신다영 기자

# BI NANO ENGINEERING Lab. 인턴

저와 같이 진로의 큰 결정 앞에 서 있는 학부생이 이런 인턴 경험을 한다면 어떤 방향으로든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백번 실패할 때의 좌절감보다 한번 성공할 때의 희열감이 더 크게 느껴졌고, 아마도 이러한 희열감이 계속 연구를 하게 만드는 활력소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제가 맡은 프로젝트는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왔으며 곧 논문을 발표할 예정에 있습니다. 연구 외적으로도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훌륭한 인재들과 보내며 수평적 관계에서 같이 토론하고, 연구하고,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면서 얻는 동료애와 자부심은 앞으로의 인생에서 가장 큰 자산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자신이 왜 전공공부를 해야 하는지 방향이 잘 잡히지 않는 학부생들과 진로에 대한 고민이 쌓여만 가는 학부생들은 아마 지금 눈앞에서 천금 같은 기회를 놓치고 있는 지도 모릅니다. 참고로 2007년 저와는 다르게 권교수님께 찾아가 기회를 잡고, 연구를 같이 해온 동기생은 이미 대학원생과 필적하는 실적을 쌓았습니다. 물론 연구실 생활이 잘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경험 할 수 있는 특권을 놓치고 내 길이 아닐 것이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연구실은 자기가 노력하고 깊게 생각한 만큼 철저하게 그에 걸맞는 보상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학부생 때만 경험할 수 있는 대학원 연구실 인턴에 꼭 한번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1학기 수상자 정해승(학부 07학번)

안녕하세요. 저는 07학번 정해승입니다.  
 보잘것없는 제가 이렇게 전기공학부 소식지에 글을 쓰게 된 계기는 제가 첫 번째로 전기공학부 봉사상을 수상하게 되는 영광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어라? 전기공학부에 봉사상이라는 것도 있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으실 것 같은데, 전기공학부 봉사상은 2009년 신설되어 학부 내에서 봉사하였다고 판단되는 학생을 선정하여 주는 상입니다.  
 저는 작년 전공하나 준비팀 대표를 맡았습니다. 다들 아실 것이지만 '전공하나'는 '전기공학부 하나 되는 나들이'의 약자로, 전기공학부 교수님, 대학원생, 학부생 모두 참여하여, 서로 간의 고민거리나 궁금했던 점들을 나누는 '전기공학부 소통의 장'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기공학부 학생이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전기공학부 내의 수 년째 이어져 오는 대표적인 행사입니다. 그동안 롤루반 대표라는 이유로, 전기공학부에 입학한 이래 매년 전공하나 준비팀을 했었는데, 작년에는 뜻하지 않게 준비팀 대표라는 무거운 직책까지 맡게 되어 더욱 뜻 깊은 전공하나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전공하나를 준비하며, 제가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의 일원이라는 것에 큰 자신감을 느꼈으며, 작으나마 전기공학부 학생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행복했습니다.

전공하나라는 행사를 통해서 교수님과의 진솔한 대화를 통해 교수님과 한층 가까워지고, 연구실 설명회를 통해 궁금했던 Lab.에 대해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함께 준비했던 다른 반의 동기 및 후배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신나게 즐기며, 반 내의 협조했던 인간관계를 보다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전공하나라는 행사를 전폭적으로 지원해주는 전기공학부 내 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전기공학부 학생들을 일일이 챙겨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전공하나라는 행사를 만들어 주신 이영근 선생님 외에 모든 행정실 선생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 뿐만 아니라, 저와 함께 같이 전공하나 준비팀을 이끌었던 각 반 대표 이위직 군, 한승주 양, 이준민 군에게도 감사하며, 그 외에 모두들 이름을 열거할 순 없지만, 준비팀을 함께해준 각 반 08, 09학번 후배들에게도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전공하나라는 행사를 계기로 전공하나라는 이름이 무색하지 않게 전기공학부 학생들이 하나 되어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타과에 비해 공부하기가 힘들다는 이유와 더불어 학기 중 주말에 진행되는 행사라 학생들의 참여가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학부 내의 좋은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전공지식보다도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더 많은 참여와 관심으로 앞으로 발전하는 전공하나를 기원합니다.



2학기 수상자 김재용(학부 03학번)



먼저 전기공학부 봉사상이라는 매우 뜻 깊은 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부를 다니면서 평소에도 과사의 도움을 많이 받았었던 터라 조금이라도 학부에 도움이 되고자 했던 것을 좋게 봐주신 것 같습니다.  
 군대를 마치고 복학을 하면서 생활비라도 스스로 해결해보자는 생각에 근로 봉사 장학생을 신청한 것이 벌써 세 학기 짤라 되었네요. 짧다면 짧고 길다하면 긴 301동 생활에 근로 봉사 장학생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전기공학부의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열정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교수님들을 비롯해서 이미 졸업하고 사회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선배님들과 과사에서 학부생들이 필요한 업무를 성심 성의껏 해결해 주시는 과사 직원분들 등 평소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했던 분들이 학부생들에게 조금 더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 여러모로 신경을 쓰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았고, 또한 그것이 생각처럼 잘 안 된다는 것을 알고 나서는 아쉽기도 했습니다. 졸업하는 입장에서 좀 더 많은 학부생들이 전기공학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저보다는 봉사상을 받을 학생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졸업 후에도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알고 감사히 받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공뿐 아니라 인생의 많은 의미를 가르쳐 주신 교수님들, 항상 친 누나처럼 근로 봉사 장학생들을 챙겨주시는 유은영 선생님, 같은 A형 소세지 배연호 선생님, 해동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누나들, 같이 근로 봉사 장학생을 했던 친구들, 과사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승주 기자

“**졸업예정자와 교수와의 만남**”은 학교 생활하면서 어려웠던 점 또는 졸업에 앞서 아쉬웠던 점을 교수님들과 생맥주 한 잔 기울이며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글 김민오(학부 06학번)

전기공학부에 들어오면서 301동으로 강의를 듣러 다닌 게 3년이나 되었지만 우리가 교수님들과 강의시간 이외에 얼굴을 마주하고 이야기 할 수 있었던 시간은 그 중에 얼마나 될까?

아마 하루, 이틀을 넘기기 힘든 것이다. 어떻게 보면 교수님과 함께 마주 앉아서 이야기하는 것이 전기공학부에서 학점을 따기보다 힘든 일 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졸업을 앞두고 교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 것이 너무너무 반가웠고 많은 기대를 하고 행사에 참여했다.

행사에 참여하시는 교수님이 얼마 없어서 교수님과 얘기할 기회가 적은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려했던 것보다 달리 교수님은 많으시고 학생은 상대적으로 적어서 교수님과 몇 미터씩 떨어져서 혼자 안주만 먹는 그런 상황은 없었다.



수업 외적인 자리에서 교수님과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색다르고 유익했다. 강의실에서는 볼 수 없었던 교수님들의 인간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자리였다. 교수님과 수업시간에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없는 것들을 말할 수 있는 자리. 그렇게 표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그것 하나만으로도 이 모임은 충분히 가치가 있었다고 본다. 전기공학부 학생수가 많기 때문에 이런 모임이 쉽지 않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앞으로 이러한 모임이 더 많이 열렸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리고 졸업생들과의 대화의 시간을 갖는 것도 좋지만 23학년 정도의 재학생들에게 이런 기회를 준다면 학부 생활에도 도움이 되고 더 가치 있지 않을까 한다.

박성식 기자

SNU EE LIFE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박성식  
(학부 06학번)

전기공학부를 홍보하는 역할을 맡게 되어서 설레기도 하고 걱정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과사 직원 분들이 잘 도와주셔서 무사히 맡은 역할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홍보도우미 활동을 하면서 평소에 만나기 힘든 교수님들과 선배님들을 만나게 되어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또한 학생 기자라는 이유로 많은 행사에 참여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끝나고 나니 처음에 계획한 것을 모두 하지 못한 것이 좀 아쉽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라 많이 부족하지만 전기공학부 학생들이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엔 쉬울 거라고 생각하고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쉽지는 않았습니다. EE LIFE를 만들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전기공학부 교수님, 선배님을 만나서 취재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수님, 선배님을 만나서 좋은 말씀을 직접적으로 듣고 그 분들의 생활을 보면서 같은 전기공학부인으로써 지금 살고 있는 현재, 미래를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SNU EE LIFE를 통해 전기공학부인들에게도 제가 느끼고 배운 것들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읽을거리가 되고 전기공학부의 한학기를 돌아보는 소식지가 되길 소망합니다. 끝으로 많이 도와주신 행정실 선생님, 취재에 참여해주신 교수님, 선배님, 글을 써주신 학우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다영  
(학부 07학번)

처음에 별 생각없이 시작한 일이었지만, 활동을 하면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홍보도우미 활동을 통하여 전기공학부의 다양하고 좋은 행사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교수님과의 면담, 선배와의 대화 등을 통해 전기공학부에 대하여 더 잘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알게 된 것들을 이번 EE life를 통해 선후배 동기 들과 나눌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의미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회의 때 나왔던 아이디어 중 실행에 옮기지 못한 것들이 있어 안타깝기도 하지만, 앞으로 점점 더 나아질 것이라 생각하고, 모쪼록 이번 EE life 다들 즐겁게 읽으시고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한승주  
(학부 07학번)